

192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유학 체험과 근대적 특성*

- 『읍혈조(泣血鳥)』와 『珍珠는 주었스나』를 중심으로

최 미 진** · 임 주 탁***

차 례

- | | |
|--------------------|-------------------|
| I. 서론 | IV. 근대 도시와 과시적 소비 |
| II. 유학생의 기생성과 자기모순 | V. 결론 |
| III. 연애의 신성과 폭력성 | |

I. 서론

한국 근대문학 연구에서 근대·근대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역사적 담론으로서 근대·근대성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담론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 근대소설에서 근대·근대성 문제는 그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 범박하게 말하면 전통 계승론과 이식론의 사이를 오가며 그 간극을 메우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 근대소설의 모태가 조선후기 서사문학

* 이 논문은 2005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에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이 서양의 근대소설, 즉 장편소설(novel)의 양식적 특성과 대중화 방식 등이 지니는 근대성과 맞물리는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소설은 근대성의 내포와 외연을 어떻게 규정하고 주체성의 정도와 성격 또한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¹⁾

1910년대 중·후반기는 교통 통신, 법, 치안, 토지 등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근대적인 것으로 대체되어 정착된 시기이다. 1919년 고종 황제의 승하하는 주체적인 근대로의 변화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는 문제는 그 기생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는느냐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셈이다.

두루 알다시피 한국 근대소설사에서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된 1919년은 “근대문학이 자리를 굳힌”²⁾ 시기로 본다. 따라서 『무정』을 기점으로 한국 근대소설이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주요한 문학 담당층인 신지식층이 ‘知日’이라는 여과지를 통해 근대·근대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신지식층 대부분이 일본 유학을 거치면서 근대적 문물을 내재화시킨 까닭이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식민지 조선의 근대·근대성을 비판하고 계몽하면서도 ‘知日’에 대한 선험이 준거로 작용하는 딜레마를 간직하게 한다. 이러한 점은 1920년대 근대소설의 근대·근대성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글은 1920년대 『동아일보』에 연재된 창작 장편소설인 『읍혈조(泣血鳥)』와 『眞珠는 주었스나』를 대상으로 신지식층인 작중인물들의 근대적 특성과 작가 의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희철(李熙喆)의 『읍혈조(泣血鳥)』(1923.6.2~10.18, 전140회)는 1920년대 초반 신문소설 가운데 1920년을 전후한 신지식층의 사상과 생활상을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그

1) 최근 근대소설의 근대성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논저는 다음과 같다.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숲, 1997.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5권, 지식산업사, 1994, 9쪽.

런데도 근대소설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작가의 생애나 문학활동에 대한 고증이 어렵고, 이 작품 이외에 다른 작품을 발표한 사실이 없기 때문인 듯하다.³⁾ 하지만 이 소설은 근대적인 문물을 체현하는 작중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자성적·비판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근대소설의 계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염상섭의 『眞珠는 주엿스나』(1925.10.17~1926.1.17, 전86회)에 비견할 만한 소설이다. 여기에서 근대적 특성은 작중 인물이 근대화를 지향하는 당대 사회의 일상적인 삶의 조건에 대응하는 방식과 성격에 국한된다. 작중인물들의 유학 체험은 이러한 근대적 특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잣대로 작용한다. 두 소설에서 작중인물들은 비슷하게 ‘근대’를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이질적인 특성 또한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읍혈조(泣血鳥)』와 『眞珠는 주엿스나』는 1920년대 초반의 ‘근대’가 소설 속에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그에 대한 작가 의식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피는 데 적절한 텍스트인 셈이다.

II. 유학생의 기생성과 자기모순

『읍혈조(泣血鳥)』와 『眞珠는 주엿스나』는 1920년대 초반 유학 열풍과 유학생의 근대적 생활상을 전경화하고 있다. 두 소설의 중심인물들은 모두 일본이나 경성에서 유학을 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읍혈조(泣血鳥)』에서 남성 주인공 서병호는 동경의 “턴턴(淺田)대학” “야학부 법학과전문부”를 수학하였고, 여성 주인공 김선희는 횡빈의 “전문당도 성경학원까지단인” 인물이다. 『眞珠는 주엿스나』에서 남성 주인공 김효범은 “경성제국대학예과생”이며, 여성 주인공 인숙은 동경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음악도이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유학 체험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는 유리된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주요한 근

3) 일제강점기 문학 사료에서 이희철(李熙喆)이란 이름을 찾기는 어렵다. 당시 문화담당층으로 확대해 『職員錄』을 살펴보더라도 도서관에 근무했던 동명인이 한 명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가 『읍혈조(泣血鳥)』를 창작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작자 고증은 좀더 시일을 두고 살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저로 작용한다.

두 소설에서 유학 체험은 주인공들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유학은 근대적인 교육제도에 따른 학문을 학습하는 동시에 학교 생활에 수반되는 다양한 경험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특히 일본 유학은 식민지 유학생에게 열등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로 다가선다. 사비(私費) 유학생의 일본행이 자유화된 1920년 이후 유학생 수가 급증하였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⁴⁾ 그들에게 일본 유학은 ‘지일(知日)’을 통한 근대적 생활양식을 몸소 체험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더욱이 일본 유학생은 식민지 조선인과 구별되는 사회적 신분을 형성하면서 식민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기제로 작용한다.

(1) 연락선에 드러가서 그는 일본 사람들의속에 끼여들어 자리를 덩하였
다 옆해안근 일본사람들하나이 『오마에』저리로가라고하는 말에 나는로동자
가 아니라 류학생이라는 큰소로대드러 말다툼까지하고 나중썰이가와서 무어
라고하는데도 배심조께 로동자가아니요 류학생이니하고 하관에상륙할때까지
그 자리를내여노치안었다 그러면서도 배안에서 지지꼴뽀히 욱을엇어먹고 혹
은 손씻는물을 퍼먹는것가튼 민족의로동자를불째에그는 중국 쿠리를 대한듯
시 텅텅하였슬뿐만아니라 도로혀 저른증생가튼것들하고 속으로 모욕하였
다.⁵⁾

(1)은 서병호가 일본유학을 위해 연락선을 댔을 때의 일이다. 그는 평소 “얼골잘생긴것” 하나만 믿고 “건방”질 뿐 아니라 “거짓말”에도 능란한 인물이다. 부모와 선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에만가면무슨별수가 나는듯이” 유학을 결행한다. 연락선에 오른 그는 “류학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자신을 식민지 조국의 “가튼 민족”인 “로동자”들과 구별 짓는다. 그는 “가튼 민족의로동자”에 대한 “동정의렴은 업”고 오히려 “중국쿠리”나 “증생”쯤으로 여긴다. 그에게 “류

4) 일본 유학생 수는 1919년 당시 678명이었던 것이 1920년에는 1230명, 1922년에는 3222명으로 매년 급증하였다. 다만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학살사건의 여파로 1923년에는 922명으로 급감하였고 이전의 유학생 수에 달하는 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일본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40년에는 2만 명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日本留學100年史』,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1988, 57~58쪽.

5) 『동아일보』 1923.6.3, 4면.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은 식민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의 부정(否定)에 이르는 선민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식민지 “류학생”인 그의 정체성에 치명적인 결과로 되돌려진다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류학생”인 자기 자신을 “일본 사람들의 의속에” 자리매김한다. 그에게 일본, 특히 동경(東京)은 “조선에서는 맛보지 못할만한 맑고 신선한” 전망의 대상일 뿐 아니라 “맏십년만에 고향을 차저드러가는 것가치” 여기고 있는 까닭이다. 하지만 식민지 모국인 일본 사람들은 그를 “가튼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가 “일본 사람들의속에 끼여들어 자리를 덩”한 것만으로도 그들과 “말다툼까지하고 나중썩이가와서 무어라고” 할 정도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다. 일본인들은 그의 생각과 달리 “류학생”을 식민지 조선인들과 동격에 놓고 위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식민지 ‘류학생’이 점하고 있는 위치의 감지는 식민지 조국과 모국사이에서 충돌하고 있는 사회공간의 객관적 구조들이 결합한 결과이다. 부르디외가 주장하듯 사회공간에서 점하고 있는 위치의 감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감지를 통해 스스로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회구조를 실천적으로 드러낸다. 그 구조들은 자신을 허락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의 감각으로 범주화한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한계를 감지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옹호되고 존경받고 기대받기 위한 거리의 감지를 함축한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암묵적 수용을 함축하는데, 존재조건들이 엄격하고 현실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부과될 때 훨씬 더 잘 적용된다.⁶⁾ 식민지 모국의 일본인이 ‘류학생’을 포함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적용하는 현실원칙은 ‘류학생’ 스스로 규정한 존재조건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학생이 식민지 조국의 현실에 대한 열등감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식민지 유학생에게 일본 유학은 열등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탈출구로 다가섰지만 오히려 그것이 열등감을 강화시키는 절망적인 기제가 된다. 이때 식민지 모국에 대한 열등감은 식민지 조국에 대한 우월감과 함께 내

6) 피에르 부르디외(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294~295쪽 참조.

재화된다는 모순을 껴안고 있다. ‘류학생’은 구별 짓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식민지 조선인, 특히 “로동자들”과 차별화하고 위계화하지만 그 결과는 식민지 모국과 조국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중간자로 자리매김할 뿐이다.⁷⁾ 아울러 그들의 구별 짓기는 유학 체험을 통해 배타적이고 위계적인 근대적 질서를 냉철하게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되지 못하고 내재화된 준거로 무차별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식민지 ‘류학생’의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읍혈조(泣血鳥)』에서는 그것을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를 빌어 “소위일본류학이라는 폐풍에” “몰니어 일본에만가면무슨별수가나는 듯이”⁸⁾ 유학을 결행하는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학 체험의 부정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주인공들의 ‘기생성’에 있다. 두 소설의 주인공들은 유학 생활의 기반이 부실한 고학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것은 1920년대 초 급증한 일본 유학생들 중 고학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던 당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무작정 일본 유학을 결행한 서병호와 같은 고학생들은 생활적 기반이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동경(東京)에 집중되어 있던 고학생들은 1925년에 이르면 유학생들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졌으며 생활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⁹⁾ 하지만 두 소설의 주인공들은 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 적조차 없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여 유학 생활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기생적인 인물들이다. 『읍혈조(泣血鳥)』의 서병호는 일본인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에게, 김선희는 미국인 아다손 부인에게, 『眞珠는 주었스나』의 조인숙은 매국적 변호사 진형석에게 각각 기생하며 일본 유학 생활을 하게 된다. 김효범 또한 경성에서 매형인 진형석에게 전적으로 기대어 유학 생활을 한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기생성은 당시 식민지 조선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간과하고 ‘류학생’ 신분이 가져다 준 화려한 기표들에 휘말릴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그들의 근대적 체험이 ‘지일(知日)’을 통한 근대적인 문화·예술적 향유에만 치중되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서병호가 실리적인 “장사” 대신 “세계공론(世

7) 프란츠 파농(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인간사랑, 1998, 23~51쪽 참조.

8) 『동아일보』 1923.6.2, 4면.

9)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앞의 책, 58~59쪽.

界公論)이나 “신세계(新世界)” 같은 잡지 창간에 힘쓰는 것이나 인숙이 “만원에 팔려” 시집가면서도 “만병통치의륙신환”인 피아노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김효범이 “활동사진”에서나 볼 법한 정의로운 스파이 흉내를 내면서 “저녁신문의 소설”을 읽고 조선의 『셰크스피어』 같은 “시(詩)” 창작을 도모하는 것 등에서 그러한 면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들의 근대적 체험은 유학 생활에서 체득한 근대적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데 있을 뿐 일상적 생활을 유지할 만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민족적 현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각이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그들의 기생성은 유학 체험을 통해 체화되고 내재화되어 있는 셈이다.

주인공들의 유학 체험은 결국 식민지 조국 경성에서 자기모순으로 나타난다. “턴턴(淺田)대학 법률과(法律科)”를 다닌 서병호는 “강원도”의 “엇던 부호의 아들”인 리괴상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성경학원을 다니며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썬지안느련애”를 설교했던 김선희는 리괴상의 현지처가 되어 “妓生”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며 서병호의 사기 행각을 돕는다. 그리고 김효범은 “마굴로 끌려 드러가는 어린녀성 하나를 구해야 보겠다는 의협심”으로 “활동사진”같은 스파이 행각을 벌이지만 그러한 보람도 없이 “동경야씨” 조인숙은 유학 자금을 대줬던 진형석의 중매로 오십이 넘은 인천의 미두대왕(米豆大王) 리근영에게 만원에 팔려 현지처(現地妻)가 된다. 이러한 주인공들의 자기모순은 기생적인 유학 체험에 많은 부분 기대어 있다. 경성에 돌아온 그들은 일본 유학 생활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습관처럼 새로운 “기생처(寄生處)”를 찾는 데 급급할 뿐이다. 주인공들은 몸에 밴 기생성을 자각하지도 극복하지도 못하고 부평초처럼 부유하고 있다. 그들의 기생성이 경성에서도 연장되면서 그들 자신의 삶을 향락하고 타락하게 만들며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부정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그들에게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식민지 현실과 민족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다만 『眞珠는 주었스나』에서는 주인공 김효범의 내적 독백을 통해 기생성에 길들여진 유학생들의 자기모순과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2) 두남녀는잠간묵묵히안절했다. 십여일전의 일을생각하면 모든 자취가썩
 려이 머리에 김흔인상을남겨노았스나 이러케되고 보니 소득이 무어냐?는 반
 성을할 제피차에공허(空虛)를느끼지안할수없었다. 좀더생활이라는 김흔알맹
 이를 근드려보지 못하고 마치 곡마단의 어릿광대가 커다란공에 올라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발뚱호로 데굴데굴굴러다가노코 『썰개보자. —썰개보지말자』
 고 한참싸오다가결국에 썩썰개고보니 싸운것이 돌이여 어리석은것을깨다른
 것가타왔다.

—이계집은귀에나오고말았다! 진가가또줄으면 마음이다시엇더케 변할지
 모르지만 하여간결과로만보면위선리가나진가는 확실히실패를하였다. 그리고
 내가승리를한것이다! 그러나 그승리를위하여 바친희생이 얼마나되는가? 지
 주사는쫓겨났다. ……이집식구는 한말가웃의 량식만 찌러지면굴며죽게되었
 다. 이주일동안해入받을못보게되었다. ……게다가문자는엇더케되었나! ……
 마은엇더케되었나! ……그리고나자신은엇더케되었나! ……아니지주사의말을
 들으면신영복이도 쫓겨난모양이 아닌가? —한계집의『울흔 생활』을강제하기
 위하여 이 만한희생을바쳐도 아까울것은없다고 대담히주장할사람이누구나?
 (-중 략-) 자기와는 전연히달은생각을가지고 자기의힘으로는 좀처럼엷볼수
 업는세계에서 호홉하는이계집을 위하여 그만한희생을바칠필요가 과연 있는
 가를 또다시힘있게 스스로 무리보고는제풀에 분로를느끼었다. 분로는증오
 (憎惡)로변하였다.증오는 경멸로 변하였다. ……그리고가슴에남는것은 아모
 것도업섰다. (-중 략-) ……아니내련인를위하여여러사람의행복을 이계집의
 행보석(行步蓆)으로그발미테 까라노하도 조타는리유와 권리가 어대잇나? 그
 러나나는 이계집에게서 무엇을어땀나?……』¹⁰⁾

(3) —이것이 지식계급이다! 신사계급이다! 아니 이사람들이 다—지식계급
 —신사계급이라고는 못할지라도 상당한상식은가지고있고 자괴집에 드러가면
 계집자식에게 바로 뽀내이며 가장이요 남편이요 애비라고큰 소리를치렀다!
 이 싸위인들로이때까지인간사회는 지탕되어 왔다!……이놈들이무엇이이러케
 도갑벼서 날뽀단말인가?……』

효범이는 이러한생각을 하면서 지절대고 꾸역꾸역트러너코 기생의 손목
 을뺏고 시달리고하는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웨 내가 이사람들을 욕을 한단말인가? 내가이세상에 와서 이사람들보
 다 더낫게하고가는일이 무애잇기에 감히속으로라도 욕을한단말인가? 여기모
 헌사람들은적어도나보다는하로라 더고생을하얏고한가지라도 더일을하야노코
 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 씹속가치하다가 (-후 략-)¹¹⁾

10) 『동아일보』 1926.1.5, 4면.

(2)는 김효범이 조인숙의 결혼 뒷거래 사실을 파헤친 후 자성하는 대목이다. 그는 동경 유학생 인숙을 “귀해”한다는 사실을 부인(否認)하면서도 그녀의 “올흔 생활”, 즉 돈 아닌 사랑에 의한 결혼을 위해 진형석의 음모를 파헤친다. 그러나 그의 스파이 행각은 지성룡의 가족들과 신영복을 생활의 현장에서 내쫓고 문자를 다시 소문에 시달리게 하는 등 주변 인물들을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한다. 그 또한 매형의 집에서 쫓겨나 지성룡 집에 얹혀 지내며 병(폐병)을 앓는다. 일련의 결과는 그의 “런인을위하여여러사람의행복을” 짓밟은 것에 다름 아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자신의 행위와 기생성에 대해 자성하기에 이른다. 그의 유학 생활은 매국적인 변호사이자 매형인 진형석의 도움으로 지탱해왔다. 그것은 누이인 효당을 팔아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었는데도 “먼산을 바라보”듯 간과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스파이 행각과 마찬가지로 “좀더생활이라는 김혼알맹이를 근덕려보지 못하고 마치 곡마단의 어릿광대가 커다란공에 올라서서 먼산을 바라보며 발뺌호로 데굴데굴굴러다가노코” “어리석은” 갈등만 거듭한 자신의 무책임함과 비검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실히 깨닫는다. 그러니까 고학생이 겪었음직한 힘겨운 생활의 현장에서 비껴나 무의미한 시시비비만을 따지는 “어릿광대”가 바로 김효범 자신이었음을 자성하는 것이다.

(3)은 근대 사회의 주역에 대한 비판적·회의적 태도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는 태도로 변전되는 내면 상황을 보여준다.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가 “지식계급” 혹은 “신사계급”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나 그것이 건설적인 측면에 기여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상당한 상식”은 가정에서는 “가장이요 남편이요 애비라고큰 소리를치”는 것이요 사회에서는 “기생 노름이나 일삼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효범은 이러한 근대의 그림자들을 비판적·회의적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은 기생성을 극복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성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의 기생성 극복을 전제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비판들은 관념의 유희에 불과하며 종국에는 자기모순과 자기파멸에 도달하는 길일뿐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眞珠는 주었스나』는 주인공의 내면 독백을 통해 유학생들에 대한 비판적·자성적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11) 『동아일보』 1926.1.13, 4면.

두 소설에서 1920년을 전후한 사상과 문화와 예술에 탐닉한 유학생들이 생활의 기생성을 극복하는 길이란 문화와 예술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립적인 생활 기반을 확립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근대인으로서 유학생이 체험한 문화와 예술은 본질적으로 식민지 조국이 감내해야 할 “폭력적인 현실”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오락적, 관념적, 유희적 성격을 지닌다. 식민지 조국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힘든 시대적 상황에서 유학생들은 습성화된 기생성에 쉽게 기대어 부유하거나 방기하는 삶을 지속한다. 이를테면 그들의 기생성은 식민지 조국의 현실과 타협하는 부정적인 형식인 것이다. 기생성이 몸에 배인 유학생의 자성적 비판의 목소리는 현실 세계와 유리된 예술과 문화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표출되다 말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유학생의 비판과 자성이 기생성 극복을 전제하지 않는 한 결국 자기기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II. 연애의 신성과 폭력성

『읍혈조(泣血鳥)』와 『眞珠는 주었스나』에서 유학생들의 근대적 체험은 많은 부분 연애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1920년을 전후한 시기 연애는 근대적 삶으로의 이입을 의미하는 유행적 풍속으로 자리매김한다.¹²⁾ 그것은 3·1운동의 실패 후 변화된 식민지 조선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당시 식민지 정책은 비판적인 민족적 담론을 정치적으로 차단하는 대신 문화적 활로를 개방시켰다. 3·1운동의 실패로 절망을 겪은 신지식층은 외래의 유행을 탐닉하고 애상적 취향에 기대는 경향이 농후했다. 연애열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외면한 이러한 상황의 산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3·1운동 이후 교육 기회의 확대로 가독 인구가 증가하면서 근대적인 독자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족적 일간지의 발간과 잡지 출간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문화계의 중심이 연극에서 문학, 특히 소설로 집중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연애는 1920년대 초반을 지배했던 사랑에 대한 담론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12)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91~122쪽.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19~169쪽.

1920년대 초반 연애는 전근대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낯설고 새로운 사랑의 형식을 표상한다. 연애는 근대에 들어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관계, 즉 사랑이라는 감정에 기반하고 있는 지속적인 의사소통 관계를 지칭하기 위해 고안된 명칭이다.¹³⁾ 이 시기 근대적 사랑의 형식으로서 연애는 자유 결혼과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데,¹⁴⁾ 그것은 남녀 관계에서 사랑의 감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 까닭이다. 근대의 주역인 신지식층, 특히 유학생들은 연애를 근대적 열망의 중심에 놓고 자연스럽게 다가선다. 하지만 연애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의 산물로 먼저 다가선다. 그것은 연애의 ‘신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 속에서 쉽게 발견된다.

(4) 그러나나나나 사랑하는영각씨여! 사람이사는 것은 정으로만도 아니고
 련애로 만도아니올시다 그보다더큰것에목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영각씨도 제에게말씀한것이있습니다 —우리는 속된사랑을 버립시다 그저한
 낫 훌륭한 인격자(人格者)가되기위하야서로 장려하며진정으로권고할만한유
 일의벗이되자고……아아!그러면영각씨 그인격자를 구하는맘—그것이 『인생
 의큰정이오 인생의 큰련애가 될것이지요 그러면 큰정과큰련애를 위하여 적
 은정과 적은련애를 회생함이 무엇이 맛갑사오릿가 이것을생각하면 이제 영
 각씨가 저를 오라고하신 것이 너무도 천박한인생의맘이올시다.¹⁵⁾

(4)는 『읍혈조(泣血鳥)』에서 김선희가 조선에 있는 연인 신영각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이다. 신영각은 방학 때 김선희의 귀국을 요구하는데, 그녀는 편지로 그러한 제의를 거절하고 있다. “속된사랑”보다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기 위해 그 차비로 “책한권더사서 일고 배”우자는 까닭이다. 여기에서 그녀는 “속된사랑”과 “훌륭한 인격자”를 각각 “적은정과 적은련애”와 “큰정과큰련애”에 견주면서 이항 대립시키고 후자를 우열한 가치로 자리매김시킨다. 배타적인 근대적 사유방식이 연애에도 적용된 결과이다. 근대적인 사랑의 형식인 연애는

13) Niklas Luhmann, *Love as Passion: The Codification of Intimacy*, tr. by Jeremy Gaines & Doris L. Johns, Cambridge, Mass.: Harvard UP, 1986, pp.41~47.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 제18호, 민족문화사연구소, 2001, 300쪽 재인용.

14) 이광수, 「婚姻에 對한 管見」, 『學之光』 제12호,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1917, 30쪽.

15) 『동아일보』 1923.7.2, 4면.

사랑의 감정뿐 아니라 남녀 관계를 근대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시킨다.

“인생의 큰련애”는 식민지 조국과 민족적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길인 동시에 성경학원에 유학 중 배운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썬지안느련애”를 실천하는 일이다. 그것은 “령덕”에만 치우친 연애의 “신성”으로 표상된다. 연애의 “신성”은 “진정한련애”이자 “낭만적” 연애로, 나아가 “자기의생명의 전부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때 연애의 “신성”은 근대적인 낭만적 사랑의 형식과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있다. 낭만적 사랑은 열정적 사랑과 달리 사랑의 환상 속에서 주체의 안정과 자기 긍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근대적인 가정을 조직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한다. 그것은 낭만적 사랑이 ‘숭고함’을 가장 상충의 규율로 삼아 남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자기심문하게 한 까닭이다. 낭만적 사랑은 부르조아적 이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근대적인 이데올로기인 셈이다.¹⁶⁾ 1920년대 전후 시기 전통적인 세계관이 잔여적 가치로 강하게 작용하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근대적인 사랑의 형식인 낭만적 사랑과 연애는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는 정신적 교감”, 즉 숭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더욱이 사랑의 숭고성은 선희가 말한 “인생의 큰련애”와 같이 계몽성으로 변전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애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속된사랑”은 식민지 현실을 간과하고 사랑의 감정에 끌려 경거망동하는 일련의 행위, 특히 “육덕련애”를 표상한다. 그것은 남녀 관계에서 “여러가지말치못할 미묘한 정(情)의동작”과 “생리덕관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낭만적 사랑이 숭고함을 준거로 삼으면서도 ‘영육일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육덕련애”는 근대적인 연애의 풍속에서 문제거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전통적인 “정조”의 관념을 여성에게만 강제하는 불평등한 성규범이 만연한 현실에서 “육덕련애”는 당대 현실과 이념에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희는 근대적인 연애의 상충하는 두 측면, 그러니까 “속된 사랑”과 “훌륭한 인격자” 중 후자를 연애의 “신성”이자 “이상”으로 관념화시켜 받아들이고 있다. 하

16) 앤소니 기든스(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83~86쪽.

지만 그것은 신영각과 결별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면서 그녀의 연애편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연애의 신성은 『眞珠는 주었스나』에서도 주인공들의 연애에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특히 남성 주인공 김효범이 문자 대신 인숙을 사랑하는 이유나 정황은 문자의 과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5) 『문자도인제는 신사상가가되었군!』하며효영이는 우섯다문자가 레식을 무시하고 삼년이나 M과사라온 것을 비웃는 수작이었다 그러나문자는 아모 말없이 눈살을췌혀해보았다.

(-중 략-)

—이굴욕에서벗어나나도남가치얼굴을들고다녀보리라뭇동무들의뒤손가락질을바다가면서도뭇백맹샌도중에단하나효영이가이싸주는덕에이래저래줄업이랍시고하고나올제누가무어라고하든지 M한아만은 훌륭한인물이되도록 도으리라—사회에한목가는 남이눈을 거들떠볼만한 신사가된뒤에 억개짓을하며 결혼식을 거행할날이 잇스리라 그날에가서야 이 굴욕을씻고 나도곤대짓하고 살리라—고 결심한삼년전이나 이 자리에 효영이에게 문초를받는죄인처럼 서 울바닥에있는 M을동경가서 있다고 속이지안을수업는 삼년후인 지금의자기를 돌려다볼게 쏘다시 새삼스런굴욕에 억개가 늦으리지는것을깨닫기 때문이다.¹⁷⁾

(5)는 문자가 효영의 비웃음에 굴욕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과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는 정황을 보여준다. 문자는 일본 유학 생활 동안 “레식을무시하고 삼년이나 M과사라온”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연애와 동거는 근대적인 일본의 결혼 풍습, 그러니까 동거 후 결혼이 관습화되어 못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동무들의뒤손가락질을” 받으며 “남가치얼굴을들고다”닐 수 없을 만큼 “굴욕”적인 것이다. 그것은 1920년 전후 조선에서 근대적인 연애가 전통적인 가치관과 결합되어 사랑하는 감정을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교감하는 데 제한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연애의 신성이 근대적 사랑에 대한 열망과 요구를 관념화한 결과라면, 그것의 실천적 형식은 여성의 ‘정조’ 관념의 강화와 실천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근대적인 연애는 성차에 따라 불균형한 이상과 실천의 형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기에 문자의 과

17) 『동아일보』 1925.10.18, 4면.

거는 반윤리적인 행위로 비판받고 “신사상가”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이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문자의 과거가 씻을 수 없는 상흔처럼 그녀의 미래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효범이 인숙을 “머리숯해서부터발뒤꿈치까지 허영으로 비저만든 고기덩어리”라고 비난하면서도 문자 대신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문자의 과거가 많은 부분 작용한 까닭이다. 그리고 인숙의 결혼 뒷거래가 신문에 보도되자 엉뚱하게도 문자의 행적이 문제가 되고 그녀는 학교에서 쫓겨나 고향으로도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그녀의 자살 시도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죽음뿐이라는 비극적 사실을 환기시킨다. 그것은 당시 여성에게 근대적 연애, 특히 “육덕련애”가 얼마나 치명적인 상흔으로 되살아나는가를 잘 보여준다. 그만큼 연애의 신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여성들에게 폭력적으로 행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1920년 전후 시기 연애는 근대적 삶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기능한다. 즉 연애의 신성은 삶의 토대와 연결되지 않는 격리된 이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연애를 지향하는 작중인물들은 연애의 신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조건과 대립한다.¹⁸⁾ 진정한 연애가 이념화된 표상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연애의 신성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경험 속에서 조정의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은 곧잘 남성의 폭력성에 굴복하고 타락과 파멸,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있다.

『읍혈조(泣血鳥)』의 김선희와 『眞珠는 주었스나』의 문자는 “이상덕 련애”를 꿈꾸었지만 결국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 그 꿈이 좌절되어 죽음을 선택하는 인물들이다. 『읍혈조(泣血鳥)』가 그 폭력성의 주체를 유학생과 부호 자제에 신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면, 『眞珠는 주었스나』는 유학생과 부호 자제에 언론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학생이나 신학문을 배우는 자제들은 “타고난 용모와 공손한 태도”로, 부호 자제들은 ‘돈’으로 각각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정욕과 명예욕을 포장하고 있다.

『읍혈조(泣血鳥)』에서 신영각과 홍순일은 신학문을 배우는 학생들이다. 그들

18)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제2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9, 78쪽.

은 “깨끗한 용모와 공손한 태도”의 이면에 감추어진 욕정을 낭만적·이상적 연애를 추구하는 여성 유학생 선희에 대한 폭력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신영작은 편지를 통해 선희에게 연애가 “령적”이고 “신성”한 것이라는 입장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3·1운동 즈음 귀국한 선희에게 “련애라는 것은 전혀 욕덕이라할수잇”다는 입장을 강요하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다. 한편 “보기에 깨끗한청년”인 홍순일은 선희가 스스로 “제일 생의 벗”이자 “당신의 안해”로 여기게 만든 다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한다. 하지만 그녀가 만세사건으로 투옥되자 곧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미국 유학을 떠난다. 이렇듯 신학문을 배우는 두 남성은 선희가 염원했던 연애의 이상과 배려된 욕망을 실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며, 결국 그 성취 과정이나 결과가 그녀를 폭력적으로 굴복시키게 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생처를 상실한 그녀가 일본 유학생 서병호와 부호의 아들 리기상의 현지처로 전락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 있다.

『眞珠는 주었스나』의 김효범은 『읍혈조(泣血鳥)』와는 달리 낭만적·이상적 연애를 추구하는 여성 유학생에 대한 남성적 폭력에 대항하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자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 점은 김효범이 남긴 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내가그를위하여 죽는다면 간사스러운말이라하겠지만 문자를위하여야문자와가치 죽어보고 싶다.둘이맞붙들고 안져서 서로 의심하고 한이엿는 걱정 에눈쌀을엿혀보려고하는것보다는문자의뜻대로 문자가깁버 하는 것을해주면 나도마음에 깁부고시원할것이다. 그는 어엽분 사람이다. 마음이 어엿분사람이다. 세상놈들이 왜못살게 구나?(십오일—마산에서)

×

죽거들랑 우리들을 총독부병원에가서 해부를해주시요. 이것이 어린생각이요. 미덥지못한것을 밋는것이지만 해부를하면혹시는 ××신문에난『김흔 관계』라는넉자가 얼마나우리들을 못살게굴었든가를 세상놈들은알리다. 그리고 M씨에게대하여 우리의변명도 되고 M씨의일생의 위안을주게되리다.……부끄럼을몰으는인간야 부끄러워 할줄을 알아라!(십칠일 마산에서)¹⁹⁾

(6)에서 김효범은 “문자의뜻대로” 동반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19) 『동아일보』 1926.1.16, 4면.

드러낸다. 문자는 인숙의 가출로 불거진 결혼 뒷거래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오각련에”의 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즉 M과의 동거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새롭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더욱이 학비 부족으로 귀국해 있던 M이 신문 기사를 접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결별의 편지를 보낸다. “M한아만은 훌륭한인물이되”기를 바랐던 문자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다. 결국 문자는 요양을 떠나는 김효범을 따라 나서지만 “『집혼 관계』”라는 신문기사가 여전히 그녀를 힘겹게 한다. 김효범은 신문 매체와 M이 모두 문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폭력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동반자살은 연애의 완성이 아니라 연애의 실패요 남성적 폭력성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신성한 연애에 희생”되는 여성과 “무정한 사회”를 술하게 문제 삼고 있었던 당대의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1920년대 연애 자살은 포즈의 일종이자 대중적 기호로 자리매김할 만큼 연애의 신성에 대한 요구가 지니는 폭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²⁰⁾

그리고 남성적 폭력은 유학 여학생들에게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읍혈조(泣血鳥)』에서 서병호의 일본 현지처였던 룡자(隆子)는 그에게 사랑과 돈을 모두 주었으나 이용만 당하고 딸 노부코와 함께 버림받고 만다. 그리고 소설적 형상으로 구상화되지는 않았지만 서병호의 고향집 아내와 딸, 『眞珠는 주었스나』에서 리근영의 고향집 아내와 자식 등도 남성적 폭력의 희생양들이다. 연애의 완성이 남성적 폭력성이 없는 사회를 전제로 한다면 1920년대 초반에 부각된 연애지상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²¹⁾ 그것

20) 권보드래, 앞의 책, 187~193쪽 참조.

21) 삼일운동 이후 학생이나 지식청년들 사이에 ‘연애지상주의’(Love is Best)가 급격하게 확산된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읍혈조(泣血鳥)』의 김선희와 『眞珠는 주었스나』의 문자의 상반된 변모 과정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증인은 우선 경청할 만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그때부터 유행된 것이니 남녀간의 새로운 연애도 모두 3·1운동의 덕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오랫동안 유교의 영향을 받아 ‘남녀 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말때문에 여자는 ‘내외’를 해서 외간 남자에게는 절대로 얼굴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남녀간의 교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 그러던 것이 3·1운동으로 글방(書堂)에서 한문(漢文)만 읽던 청년들이 머리를 깎고 학교로 들어가고 집 속에 깊이 파묻혀 있던 여성들이 짧은 치마에 굽 높은 구두를 신

은 경성으로 대표되는 조선의 근대 도시 사회의 특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 유학 여학생들과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식 청년들이 당면한 생활 기반의 취약성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그들 모두 도덕적 무책임과 윤리적 타락의 세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근저로 작용한다.

IV. 근대 도시와 과시적 소비

『읍혈조(泣血鳥)』는 1915년 무렵부터 1923년 무렵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이 일어나는 주요 무대는 일본의 동경(東京)과 횡빈(橫濱), 조선의 경성(京城)과 개성(開城)이다. 1917년 무렵 동경은 이미 경제와 정치, 자본과 권력이 밀집한 상관계계를 맺고 있는 근대 도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으며, 횡빈은 선박을 통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지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1920년 경성은 전차, 전화, 신문이나 잡지, 경찰서, 법원 등 근대적인 제도가 일상으로 체험되고 있었지만, 동경이나 횡빈과 같이 ‘생산적인’ 도시의 형상이 아니라 ‘소비적인’ 도시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부호의 아들, 유학생, 기생 등이 모두 소비의 주체로만 등장한다. 부호의 아들들은 빈같이 큰 연회를 벌여 기생과 첩들을 데리고 유흥을 즐기고,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여성 유학생들은 그러한 부호들을 상대로 기생과 진배없는 생활을 하며 타락해 간다.

고 거리를 활보하게 되니 강(江)물의 독이 일시에 터진 듯 남녀간의 사이가 갑자기 가까워질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조혼(早婚)으로 이루어진 자기들의 결혼은 부모가 강제로 시킨 것이므로 진정한 결혼이 아니라고 이혼을 주장하여 아무 죄도 없는 수많은 여성들이 일시에 생과부가 되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아무리 완고한 집안의 부모라 하더라도 귀여운 딸자식이 장래 만년(萬年) 처녀나 생과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을 다투어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으니 한국 여성의 새로운 교육은 실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여자교육기관이(…) 절대로 그 수효가 부족하였다. 그뿐 아니라 전문학교 이상의 대학이라고는 한군데도 없었으므로 여자로서 고등교육을 받자면 좋은 싫든 일반 남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경으로 가서 유학생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을한, 『實錄 東京留學生』, 탐구당, 1986, 83~85쪽.

(7) 그것은 꽃구경도 이미즈른 오월중순 어느날밤이었다. 그러나 봄은 꽃의봄만아니요『밤』의 꽃으로 더인생을환락의 세계로잇쓰는 것이다. —광화문 통으로**통을 향하야나가는 넓은길에는그침침한 대기속에서 무수한 인생이 숨었다 나타났다.

취흥에 술취한거름을 방향업시 옮기는것이다. 각료리스집의 문압해는 이들의인생으로 또한장거리를만드렸다.

서대문당방면에서 다라오는 던차가 괴롭각압해 머물넛슬때에 기생갓기도 하고 또는 뉘집머느리갓기도한 젊은녀자가 양복입은남자하나를 뒤에달고 던차에 올랐다. 그리고그녀자는선회였다.²²⁾

(7)은 일본 유학생 김선희가 경성의 한 “료리스집”에서 나와 “던차”를 차는 대목이다. 김선희는 강원도 부호의 아들 리기상의 현지처로 “券番기생의 闕席을” 메워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서 과거 “강한의지(意志)의소유자(所有者)”이자 “확실(確實)한 희망에 “열성덕”이었던 일본 유학생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그녀는 신성한 연애에 좌절당하고 취약한 생활적 기반에 부대끼다 “매음녀”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부호 자체에 기대어 경성에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타락한 삶을 영위하면서 가끔씩 “련애가 죄악이다”라는 감상적 한탄만 할 뿐이다. 이렇듯 부호 자체들은 유흥적이고 소비적인 생활에 빠져 있고, 여성 유학생은 그들에 기생하면서 그러한 생활을 일상으로 영위하는 삶의 형국이 1920년 무렵의 경성이었던 것이다.

근대 도시 경성에서는 근대적인 교육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부호 자제들이 근대적인 산업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부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욕망은 명예욕 혹은 권력욕과 결부된 것이다. 『읍혈조(泣血鳥)』의 리기상은 경성의 유흥적이고 소비적인 습성에 젖어 있으며, 그로써 명성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던 차에 무역업을 하자는 김선희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다. 교육에의 접근 가능성을 상실하고 교육시킬 자녀를 기르지 못한 오십대의 부호 자제 리기상 으로서는 유학생 아내 김선희를 통해 “떳떳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리기상은 자신의 욕망이 김선희와 서병호가 공모한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서병호를 고소하고 김선희에게는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한다. 이렇듯 부호 자제들은 근대 사회를 제대로 운영할 안

22) 『동아일보』 1923.9.22, 4면.

목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헛된 욕망만 가득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위험이 그만큼 높았다. 또한 리기상이 자신의 상황을 성찰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은 부호 자제들의 부정적 일면을 한층 더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명예욕과 결부된 소비적 습성은 리기상의 돈을 횡령한 동경 유학생 서병호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근대적인 교육 기회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식 청년도 명예욕과 결부된 소비적인 습성에 젖어 있는 것이다.

(8) 이리하여 나날이 커져가는병호의 맘은사람만 교제하는것으로 도저히 만족할수업는 것이다.자기의 명예를넓히 세상에구하고 서병호라면누구나 모르는사람이업게 한번자기의 처디를만들고 심혔다.그리하여 그동안친하게된 조선사람 일본사람할것업시 뱃뱃을모하 가지고자그가 무슨잡지하나를 발간할것을 선언하였다.그것은 병호의생각에 일홈을세상에 드날리게하는데는 잡지에서더 호흔것이업다고 생각한짜답이다. 그리고자그에게 사회나인생에게 대하여 확호한주의당견이 잇서서 잡지를 발간한다면 명예를구한다사그것이 무슨우수운 일이되리오마는 병호는 그것도업시 오직명예심에만 급급한 것이 너무도조선사람덕이었다.²³⁾

(9) 그째에 동경으로말하면 수업는조선사람이 무엇하라는것 업시모혀드는것이였다. 그리고 그들의대부분은 부자의 아들들이다. 한번동요를바든 그들의맘은다시 었더케 할 수 업서서—물론 일본에온목덕은 공부엇지마는—그냥 놀고먹고허랑방탕히 지내는것이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사조의중독자가되여버렸다. —이조흔노름판에서병호는 다시다바다의집으로도라가기를 원할리가 업다.그는역시조흔세상이왓구나하고사람을교제하기와 자기의일홈을드날리기에더자미를 늦기는것이업섯다.²⁴⁾

(8)은 서병호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세계사”라는 잡지사를 만들고 잡지 『신세계』를 발간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잡지 발간 자금은 그의 노력이 아니라 장인인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에게서 흘러나온 것이다. 하던희삼랑(河田喜三郎)은 서병호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딸 룡자(隆子)와 손녀 노부꼬에 대한 애처로운 감정 때문에 주택과 사업 자금을 마련

23) 『동아일보』 1923.9.18, 4면.

24) 『동아일보』 1923.9.20, 4면.

해 준다. 서병호는 그 사실을 알고 실리적인 장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룡자를 띄워 자금을 빼돌리고 잡지 발간을 도모한 것이다. 그는 잡지 발간을 자신이 알고 지내던 “조선 사람 일본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 “명예를 넓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이러한 명예욕은 서병호라는 존재를 사회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을 숨기려는 책략이 함축되어 있다. 식민지 모국에서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폄하는 룡자의 임신 사실이 폭로된 이후 그가 줄곧 감내해야 할 현실이었으며, 생활 기반의 취약성에 비해 향락적인 소비 습성이 그를 더욱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얼굴잘생긴 것” 하나만 믿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던 상황은 서병호가 잡지 발간에 온갖 노력을 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가 “명예심에만 급급”할수록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은 그만큼 가중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는 서병호가 “자기에게 사회나 인생에게 대하여 학호한주의 경건”도 없이 오직 명예를 위해 잡지 발간을 준비한다는 점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가하고 있다. 더욱이 명예욕은 서병호뿐 아니라 동경 유학생, 나아가 식민지 조선인들이 오랫동안 지녀온 그릇된 행태라는 점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다.

(9)는 동경 유학생들 가운데 부호의 자제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학 생활에서 유희적인 삶에 젖고 자유·낭만을 골자로 하는 세계 사조에 탐닉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부호 자제 유학생들이 표면적으로는 세계 사조에 탐닉하면서도 이면에서는 소비적인 습성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병호는 이러한 유학생 사회를 “조흔 노름판”으로 인식하고 그들을 부추겨 잡지사 창간에 끌어들인다. 잡지 발간으로 일본 경찰이 미행하기 시작하자²⁵⁾ 서병호는 자신의 명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여겨 즐기기 시작한다. 하지만 실상은 서병호가 잡지 판매 부진과 자신의 소비적인 생활로 잡지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조선에 사람을 보내 자금을 마련해 오게 한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지방마다 돌아다니며 모금을 하고 평양의 부호를 협박하기도 하여 자금을 마련해 오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이름을 알

25) 서병호는 일본 경찰의 미행이 잡지 홍보 신문광고에 “드러라! 살라자의 부르 지금을 / 읽으라! 조선청년의 피로 산 이 잡지를”(『동아일보』 1923.8.12, 4면.)이라는 문구 때문이라 여기고 있다.

리기 위한 소비로 탕진한다. 결국 서병호는 평양 부호의 고발로 체포되어 경성으로 압송되어 사법 처리를 받는다. 서병호의 소비적 습성은 출옥 후 김선희와 공모하여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기생들과 유혹에 소진하는 데에서도 다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예욕과 결부된 소비적인 습성은 『眞珠는 주었스나』의 인물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요 무대는 경성과 인천이며, 등장 인물들은 일본 유학을 하거나 서울에서 유학하는 스물 남짓한 인물이다. 그들이 이동하는 공간은 주로 “려관”, “요리집”, “하숙집”, 그리고 “구한국시대 청년 검사”를 지내고 뚜쟁이 노릇을 병행하고 있는 현직 변호사 진형석의 집이다. 진형석은 시골 여자 김효명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의 동생 김효범의 서울 유학을 뒷바라지하는데, 이 뒷바라지는 자신의 명예와 관계가 깊다. 김효범이 경성제국대학생으로 지방에서 명성 있는 인물이고, 따라서 그런 인물을 후원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 까닭이다. 진형석은 또한 조인숙을 수양딸로 삼아 일본 유학을 뒷바라지하는데, 이는 자신의 새로운 사업 기반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다. 그는 인천 미두대왕(米豆大王)으로 불리는 군산 출신의 미곡상 리근영에게 음악가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일본 유학생 조인숙을 팔아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리근영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값하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또 그에 맞는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려는 일념에 음악회에서 만난 조인숙과의 혼인을 도모한다.

(10) 을축년십일월 이십사일 화요(火曜)오후네시전이다. 가슴짜قم 측향편에서 불려드는 쓸쓸한바람이 저녘째부터 일기 시작하였스나 말개개인 쫓달한 날새는 초봄가지 부드러운감촉을 주었다.

인천○○배당안팠근사람의 께로 허여케덱히여 와글와글숙숙설하고 인력거 자동차는불뿤이나게 그사이로 헤어단닌다.

『허! 부운령감도왔군! 아모턴지 인천서 실업가관공리유지 신사할것업시 소위 번쪽어린다는놈쳐노코아니온놈은업군!』

『암으렴! 미두판을쥐엇다떠나다하는사람인데! 제길헤! 멧만원봣들면 나도 한번 거드럭어려보겠단만……』

교당으로들어가는 축대엽헤 어느중개덤원비슷한청년들이 속은속은하고 섯스러니까 자동차에서『모닝코트』에『쏘프트』를쓴부운이 두세명의 속리를짜라정중한인도를 바드며 드러가자 경찰서장이 견장의금줄을 번쩍이며 인력거

로 드러오고누구누구하는 관리측이 우루를몰려뒤따라드러간다.

(-중 략-)

이런이야기를숙설거리는동안에또자동차가삼사대나들모라드러온다.맨앞차에서『모닝코트』우에『임바네쓰』를입고중산모를쓴 수염이 허여케세인 로신사가천천히 내려서니까 접대원은 허둥허둥또차나가서
『대감께서이먼데를 ……」하며 굽실굽실한다.²⁶⁾

(10)은 리근영과 조은숙의 혼인 “례식”전의 광경이다. 리근영은 논산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은폐하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결혼식은 음악가 조인숙이 신교육을 받은 음악가에 걸맞은 사회적 대우를 공인받으려는 의도에서 요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리근영 또한 결혼식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의 공식적인 확인 절차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참석자의 사회적 지위나 규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결혼식 전 광경은 1920년 전후 시기 금력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미두대왕 리근영의 금력은 같은 지역의 실업가, 관공유지뿐 아니라 친일적 귀족계급인 안 남작, 경찰서장, 신문사 대표,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집결시킨다. 그만큼 금력은 당대 사회의 권력이나 명예에 앞선 가치를 지닌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귀속적인 신분계급에 의해 분할되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미 근대 사회가 귀속적 신분보다는 자본의 운용 능력에 따라 사회 계급이 형성 중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부윤령감과 안남작의 옷차림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당시 권력층의 과시적 소비가 많은 부분 실업가들의 금력과 연계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⁷⁾

두 소설은 1920년을 전후한 시기, 근대 도시 경성이 생산 도시보다는 소비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도시에서 부호 자체는 물론이고 유학 청년들까지 명예욕과 결부된 소비 습성에 젖어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의 성적 욕망이 여성 유학생들이 추구한 낭만적 연애의 가면을 쓰고 확대 조장될 수 있는 물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26) 『동아일보』 1925.1.15, 4면.

27) 김경일, 앞의 책, 217~269쪽 참조.

V. 결론

이 글은 1920년대 초반 『동아일보』에 연재된 두 소설 『읍혈조(泣血鳥)』와 『眞珠는 주었스나』를 대상으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는데,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 소설의 주인공들은 새로운 근대적 주체인 유학생들이었으나 취약한 생활 기반을 지닌 까닭에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기생성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기생성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가로막는 근저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식민지 유학생들이 식민지 모국과 조국 사이에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모색하는 예를 찾아보기란 힘들었다. 더욱이 그들의 유학 체험이 근대 일본의 문화·예술의 탐닉하는 데 집중됨으로써 귀국 후에도 이러한 기생성이 극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귀국 후 기생성은 자기모순으로 이어지면서 타락한 삶에 이끌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읍혈조(泣血鳥)』에서는 전지적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眞珠는 주었스나』에서는 주인공 김효범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과 자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소설은 공통적으로 근대적 체험의 중심에 연애를 상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애는 1920년을 전후한 시기 연애의 신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성의 폭력성과 교묘하게 결합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연애의 신성은 영육일치를 지향하면서도 숭고함을 자기 준거로 삼는 낭만적 사랑의 형식과 이데올로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결합하여 여성의 ‘정조’를 강화하고 내재화하는 데 조력하였다. 결국 연애의 신성은 근대적인 사랑의 형식인 낭만적 사랑과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 유학생을 규제하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여성들은 연애를 연애하거나 “육덕연애”에 기대는 경향조차 드러내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의 폭력성은 전통 사회와 다를 바 없이 행사되고 있었다. 이러한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과 비판은 『읍혈조(泣血鳥)』보다 『眞珠는 주었스나』에서 좀더 면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소설은 근대 도시의 과시적 소비성향을 보여 주었다. 1920년

전후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미 일본을 통한 근대적 문물이 일상적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성으로 대표되는 근대 도시는 건설적인 생산 도시의 면모를 상실한 채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소비 도시의 면모만을 보여주었다. 소비의 주체로 등장하는 부호의 자제뿐 아니라 유학생들까지 과시적 소비에 경도되어 있었다. 부호 자제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 하였고 생활적 기반이 취약한 유학생들은 부정적 방식으로 취한 자본을 명예뿐 아니라 향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소비하고 있었다. 특히 부호 자제들은 물질 기반에 기대어 여성 유학생들이 꿈꾸던 낭만적 연애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좌절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두 소설에서 낭만적 연애를 통해 근대적인 개성을 추구하려는 유학생들의 시도는 소비적이고 기생적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퇴폐성은 제국주의 지배 하의 식민적 사회질서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두 소설에서 발견한 이러한 근대적 특성은 1920년대 전후 시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맞물려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근대 산업 사회의 배경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1920년대 근대 도시 경성에서 한층 확대 강화되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두 소설은 근대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지식 청년들이 대중과 다를 바 없는 형상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특정한 층위에서 드러나는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는 기생성, 폭력성, 소비성이라는 기형적 특성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이희철, 염상섭, 『읍혈조(泣血鳥)』, 『眞珠는 주었스나』, 1920년대 소설, 유학체험, 『동아일보』, 신문소설, 근대성, 근대도시, 기생성, 자기모순, 연애, 신성, 폭력성, 과시적 소비

참고문헌

- 염상섭, 『眞珠는 주었스나』, 『동아일보』, 1925.10.17~1926.1.17(전86회).
- 이희철, 『읍혈조(泣血鳥)』, 『동아일보』, 1923.6.2~10.18(전140회).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1~288쪽.
-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1~352쪽.
- 권영민 엮음, 『염상섭 문학 연구』, 민음사, 1987, 1~499쪽.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1896~1945』, 민음사, 2002, 1~654쪽.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1~399쪽.
- 김동식, 『연애와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제18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299~326쪽.
- 김미영, 「1920년대 여성담론 형성에 관한 연구-‘신여성’의 주체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268쪽.
- 김병구, 「염상섭 소설의 탈식민성-〈만세전〉과 〈삼대〉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8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6, 173~195쪽.
-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1~273쪽.
-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적 성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154쪽.
- 김영민, 「동서양 근대소설의 발생과 그 특질 비교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2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3, 439~468쪽.
- 김영민, 「한국 근대계몽기 ‘소설’의 정체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9, 108~135쪽.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1997, 1~577쪽.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1~676쪽.
- 김을환, 『實錄 東京留學生』, 탐구당, 1986, 1~292쪽.
- 김지영, 「‘연애’의 형성과 초기 근대소설」, 『현대소설연구』 제2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9, 51~82쪽.
- 김지혜, 「염상섭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1920~30년대 중·장편을 중심으로」,

-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1~94쪽.
- 민병덕, 『韓國 近代 新聞連載小說 研究: 作品의 共感構造와 出版의 機能을 中心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89, 1~210쪽.
-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1~436쪽.
- 신명직, 『모던 뽀이, 경성을 거닐다: 만문만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 현실문화연구, 2003, 1~347쪽.
- 신수정,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여성의 재현양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1~132쪽.
- 안미영, 『1920년대 불량 여학생의 출현 배경 고찰-염상섭의 「너희들은 무엇을 어딴느냐」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1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3.3, 293~317쪽.
- 유임하, 『근대/근대성의 문학 연구 과제와 그 전망』, 『동악어문론집』 제32집, 동악어문학회, 1997.12, 497~514쪽.
- 이광수, 『婚姻에 對한 管見』, 『學之光』 제12호, 재일본동경조선유학생학회, 1917, 28~34쪽.
- 이동하,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현대문학연구』 제12집, 서울대 대학원 현대문학연구회, 1987.
- 이소연, 『일제강점기 여성잡지연구-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1~75쪽.
- 이재선, 『한국소설사 근·현대편 I』, 민음사, 2000, 1~561쪽.
-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日本留學100年史』, 재일한국유학생연합회, 1988, 1~380쪽.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5권, 지식산업사, 1994, 7~51쪽.
- 주종연, 『한국근대단편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82, 1~222쪽.
- 차혜영, 『소설 개념 형성과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정치학』, 『민족문학사연구』 제28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5.8, 10~40쪽.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1~563쪽.

최영석, 『근대 주체구성과 연애서사-계몽성과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2, 1~119쪽.

최혜실,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2000, 1~398쪽.

허병식, 『식민지 청년과 교양의 구조-『무정』과 식민지적 무의식』, 『한국어문학 연구』 제41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3.8, 378~397쪽.

피에르 부르디외(김용숙 외 옮김), 『남성지배』, 동문선, 2000, 1~205쪽.

피에르 부르디외(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1~319쪽.

앤소니 기든스(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1996, 1~320쪽.

프란츠 파농(이석호 옮김), 『검은 피부 하얀 가면: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대의 책읽기』, 인간사랑, 1998, 1~293쪽.

<Abstract>

Experiences of Studying Abroad and Modern
Characteristics of
Serial Stories in Newspaper in 1920s
– Focusing on *Euphyeoljo* and *I Found a Pearl*

Choi, Mi-Jin · Yim, Ju-Tak

This essay aims to examine modern characteristics of main characters with an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in two novels *Euphyeoljo* and *I Found a Pearl* which were serially published in *The Donga Ilbo* in the 1920s.

First of all, the main characters of the two novels were students studying abroad who were supposed to be the new modern agents, but they displayed a tendency to entirely rely on others because of their vulnerable financial condition. The parasitism served as an obstacle not only to serious self-reflection but also to the situation of Jose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t the time. Moreover, the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was diverted to indulging themselves in culture and arts of modern Japan, so it was almost impossible to deal with their dependence even after they came back to Joseon. Their parasite-like life was followed by self-deception and contradiction after their arrivals in Joseon and they were exposed to the risk of giving themselves up to the depraved lives.

Second, both of the two novels put love at the center of modern experiences. The love can be characterized by a delicate combination of expectations for the sanctity of love and men's violence around the 1920s. The sanctity of love pursued the harmony of body and soul, while it also

showed some forms and ideologies of romantic love which were in conformity to the sublime. Combined with traditional values, it served as a tool to intensify and internalize women's chastity. Even women revealed their tendency to admire love itself or to completely rely on "physical love." At the same time, men's violence remained as in the traditional society.

Lastly, the two serial novels published in the newspaper depicted conspicuous consumption in a modern city. The modern city around the 1920s represented by Gyeongseong was described as a decadent and pleasure-seeking consumption city. Students who studied abroad as well as young people from the affluent families as main consumers in the novels were obsessed with conspicuous consumption. The youth from the wealthy class tried to win more reputation through consumption, while the students spent the money they gained in a fraudulent way in maintaining their reputation and leading dissipated a life.

These modern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two novels were intertwined with overall structure of the Korean society around the 1920s. This can be interpreted as general characteristics of a popular novel or retrospect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Yet, it cannot be seen as modern characteristics, in that the intelligent youth as modern agents in modern city of Gyeongseong in the 1920s were leading a life not that different from other people's. Therefore, the modern Joseon under the colonial rule should be characterized mainly by such characteristics as parasitism, violence and consumption.

Key Words : Lee Hui-cheol, Yeom Sang-seop, *Euphyeoljo*, *I Found a Pearl*, 1920s Novel, experiences of studying abroad, *The Donga Ilbo*, serial story in newspapers, modernity, modern city, parasitism, self-contradiction, love, sanctity, violence, conspicuous consumption.